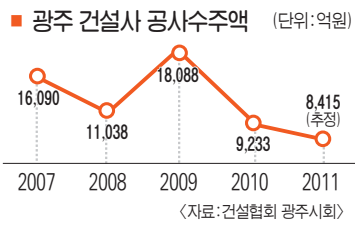


# 광주 건설사 '불황터널' 끝 안보인다



작년 공사 수주액 8415억...2010년 '반토막' 이어 또 9% 감소  
SOC예산 축소·부동산경기 침체 탓...올해도 5% 가량 줄어들듯

광주지역 건설사들이 건설 불황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사 수주액이 '반토막' 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또다시 10% 가까이 수주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은 총 841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9233억원) 대비 8.9%, 2005년에 비해서는 70.3% 각각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09년 1조8888억원에서 2010년 9233억원으로 수주액이

'반토막(48.9%)' 난 뒤 또다시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 건설업체가 고사상태인 것으로 진단된다.

업체당 평균 수주액 역시 42억원으로 추정돼 전년 48억6000만원보다 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평균 수주액 101억원의 43% 수준이며,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60.5%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수주액 감소 추세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올해 건설경기기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올해 공공공사는 전년보다 3.4% 감소하는 등 건설수주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 건설사들의 수주액도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체 수는 194개사로 전년보다 1개사가 늘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자본금 미달 등 부적격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건설사 실태조

사를 한 결과, 광주지역은 전체 조사 대상 46개 건설사 중 28개사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10곳 중 6곳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본금이 부족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공토목공사 발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수주불량 감소와 경영난 심화가 우려되고, 최저가낙찰제마저 전체 공공공사의 50%에 달해 수익성 악화로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복직' 지난 12.7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 입주신청이 시작된 9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연합뉴스

## 최근 10년새 전세→월세 급증

월세비율 12.6%→20.1%로...주택 유형 아파트 58.7%로 확대

최근 10년 사이 주택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율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고려하면 전세가 월세로 상당 부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의 의뢰로 작성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를 보면 2000년 당시 주택점유 형태 중 전세 비율이 28.2%였으나 2010년엔 21.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월세 비율은 12.6%에서 20.1%로 올랐다. 자가 비율은 이 시기에 54.2%를

유지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많아진 것은 저금리 등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이 활발했다.

단독주택의 전세 비율이 10년 사이 9.6%포인트(30.1%→20.5%) 내렸다. 월세는 14.3%포인트(15.1%→29.4%)나 올랐다. 자가 비율이 이 시기에 48.1%에서 44.6%에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전세 감소는 대부분이 월세가 된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수 변화를 보면 아파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0년 523만 1000호에서 2010년 857만 6000호로

급증하면서 전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7%에서 58.4%로 확대됐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같은 기간 126만6000호에서 185만호로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406만9000호에서 408만9000호로 비슷한 수를 유지해 비중은 37.1%에서 27.9%로 떨어졌다.

주거환경은 단독주택의 개선이 괄목할 만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10년이나 최근이나 거의 모두 현대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연합뉴스

## “소득공제 누락되지 않게 미리 증빙자료 챙기세요”

광주국세청 찾아가는 연말정산 설명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 지난 4월~18일까지 원천징수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연말정산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설명회는 광주, 전남, 북 소재 모든 세무서에서 실시중이며 국가기관, 비영리·영리법인 등 원천징수자의 연말정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말 전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 조치는 사전에 해당가족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이 15일 이후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어 15일 이전에 미리 동의 신청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전산 추출할 예정이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 시부담해야 한다.

정확한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고객센터(http://call.nts.go.kr)에서 유사상담사례를 검색해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간단한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콜론 126번(국번없이)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세미콜론센터는 일반 세법상담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및 홈택스 관련상담과 현금영수증 자동조회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중소 대졸 초임 2373만원 적당”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 초임을 평균 2373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급하고 있는 평균 대졸초임은 이보다 255만원 낮은 2118만원이었다.

올해 임금도 지난해와 변동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올랐다' 31.5%, '작년보다 내렸다' 1.5% 등의 순이다.

'신입 사원 중 남성의 연봉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대답률은 29.2%로 '남녀 모두 똑같다'라는 응답(52.8%)을 크게 밀돌았으며 '여성이 더 높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연합뉴스

한화 고졸·인턴  
올 1200명 채용

한화그룹은 올해 3월 고졸공채 500명 및 채용전제형 인턴 700명 등 고졸(졸업예정자 포함) 신입사원 총 1200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차원에서 고졸자를 대거모으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선발 대상은 공고와 마이스터고, 상고, 조리고 등의 학생이다. 고졸 공채는 서류접수, 한화인 적성검사, 두 차례의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연합뉴스

신세계 8천명 선발  
1조9000억 투자

신세계그룹이 올해 유통 등 주력사업 분야 위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8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다.

9일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복합쇼핑몰과 온라인사업, 백화점과 이마트의 국내외 점포 확장, 프리미엄 아울렛 신설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투자와 성장을 멈출 수 없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 ‘유럽 불안’ 코스피 4일째 하락

어제 16.65P 내린 1,826.49...코스닥은 상승장 마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코스닥지수는 하루만에 반등해 520선을 회복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16.65포인트(0.90%) 내린 1,826.49로 마감했다.

이날 0.60% 내린 1,832.04로 개장한 지수는 장중에 1.77%(1,810.48)나 급락했다가 오후 들어 나뉘는 일부만 회복했다. 1,82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지난 3일 고점인 1,875.41에서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작년 연말

수준으로 되돌았다. 지난해 남회일 당일 코스피 증가는 1,825.12였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져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럽 정상들의 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전체적으로 관망 심리가 유지됐다.

외국인은 864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710억원, 기관은 619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152억원)를 나타냈다.

이들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거셌다. 프로그램은 차이거래를 중심으로

2601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4포인트(0.26%) 오른 520.28에 거래를 마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26.49 (-16.65)
▲ 코스닥지수	520.28 (+1.34)
▲ 금리 (국고채 3년)	3.35% (+0.01)
▲ 원·달러 환율	1,162.00원 (+1.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아이엘리시아**  
특허형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타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우어탕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영광읍 신방리 1-1 (신방리) | 연락처: 062-576-8600